

주체성-대상성 자기와 긍정적 환상의 관계에 관한 한일비교 연구*

이누미야 요시유키†

서정대학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폭넓게 드러난 자기평가의 차이를 조명함으로써 자기에 관한 긍정적 환상의 문화차를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에 의해 설명하려는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긍정적 환상의 문화차를 설명하는 대체 모델인 주체성-대상성 자기 이론을 한국대학생과 일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일본인을 대상으로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의 교차타당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사용가능한 타당한 척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론적 예상대로 한국인이 내면화한 문화적 자기관은 주체성 자기이고 일본인이 내면화한 문화적 자기관은 대상성 자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인의 경우도 일본인의 경우도 허구적 독특성, 지각된 통제감, 비현실적 낙관성과 같은 긍정적 환상은 실제로 개인이 내면화한 주체성 자기와 정적 상관이 있고 대상성 자기와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대인관계의 분리-연결 차원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영향력의 방향성 차원을 추가한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이론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보이는 긍정적 환상의 문화차를 일관되게 설명함으로써, 심리적 과정과 사회적 행동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적 자기관 이론으로서의 일정한 타당성과 유용성을 구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한일 비교 성격론의 정교화 및 확장을 시도하기 위해 자기평가 이외의 심리과정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한국인의 주체성 자기와 일본인의 대상성 자기 형성의 가정적 및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긍정적 환상, 주체성-대상성 자기, 허구적 독특성, 지각된 통제감, 비현실적 낙관성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32-H00020).

† 교신저자: 이누미야 요시유키, 서정대학 유아교육과, (482-860)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681-1
Tel : 031-860-5086, E-mail : inumiya@hanmail.net

‘사람들은 왜 긍정적 환상을 갖는가?’라는 문제는 많은 관심을 받아 왔고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켜 왔다. 전통적으로는 정확한 자기 인식이 정신건강의 필수 조건인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나(Jahoda, 1953),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긍정적인 환상(혹은 자기고양)이 정상적인 인간 사고의 특징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Taylor & Brown, 1988, 1994). 자기고양은 서양 문화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발견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많은 비교 문화 연구를 통해 일본에서는 그러한 자기고양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Heine & Hamamura, 2007; Heine, Kitayama, Lehman, Takata, Ide, Leung, & Matsumoto, 2001; Heine & Renshaw, 2002; Heine, Takata, & Lehman, 2000; Markus & Kitayama, 1991a). 그래서 이러한 자기평가의 문화적 차이는 문화에 따라 상이한 자기관, 즉 구미 문화의 상호 독립적 자기관 (independent self-construal)과 동양 문화의 상호 협조적 자기관(interdependent self-construal)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Heine et al., 2001; Heine & Lehman, 1995, 1997; Markus & Kitayama, 1991a). 그런데 최근의 여러 연구를 통해 한국인은, 일본인과는 달리, 자기에 관한 긍정적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누미야, 최일호, 윤덕환, 서동효, 한성열, 1999; 정욱, 한규석, 2005; 조궁호, 2002; 조궁호, 명정완, 2001).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환상은 기존의 이론적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누미야와 김윤주(2006)는 문화적 자기관의 대체 모델로서 한국인의 주체성 자기와 일본인의 대상성 자기 이론을 제안하였고,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를 측정하는 척도의 개발을 시도하였다(이누미야, 한민, 이

다인, 이주희, 김소혜, 2007). 그러나 아직 일본에서의 교차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국과 일본에서 실제로 주체성-대상성 자기와 긍정적 환상 간에 관련이 있는지도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의 교차타당화를 시도하고 주체성-대상성 자기와 긍정적 환상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긍정적 환상의 문화차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현실에 잘 적응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타자와 비교하여 좋은 특성과 능력 그리고 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밋빛의 장래가 기다리고 있는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다(Baumeister, 1991; Taylor & Brown, 1988). Taylor와 Brown(1988)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시키는 경향(자기고양 편향, self-enhancing biases)을 지각 내용 자체에 착안하여 긍정적 환상(positive illusions)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비현실적으로 긍정적인 자기관(unrealistically positive views of the self), 과장된 개인적 통제감의 지각(exaggerated perceptions of personal control), 비현실적 낙관성(unrealistic optimism)이라는 세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구미사회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긍정적 환상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훨씬 더 약하거나 완전히 존재하지 않다는 많은 사례가 보고되었다(Heine & Hamamura, 2007; Heine et al., 2001; Heine & Renshaw, 2002; Heine, Takata, & Lehman, 2000; Markus & Kitayama, 1991a). 이러한 자기평가에 관한 인

지적 및 동기적 과정은 본인의 자기관에 따라 다를지도 모른다(Heine & Lehman, 1997; Markus & Kitayama, 1991a, 1991b). 자기고양의 존재 여부는 자기관의 본질에 의거한다. 예를 들어 상호독립적 자기관을 가진 개인에게는 자신을 정의하는 데 있어 중요한 특성에 관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다는 지각은 긍정적 자기개념을 가지고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상호협조적 자기관을 가진 개인의 경우 자기에 관한 긍정적 느낌은 타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데서 얻어질 것이다. 자기고양에 대해 서양인과 동양인을 비교한 그 동안의 연구들에 관한 최근의 한 메타 분석 연구는 이러한 설명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Heine & Hamamura, 2007). 즉, 모든 연구들을 통해 전반적으로 자기고양에 관한 현저한 문화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동아시아인과는 대조적으로 서양인만이 자기고양의 강한 증거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동서양을 비교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분석은 국가 간의 문화차를 은폐해버릴 위험이 있다. 최근의 여러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권의 일원인 한국인은, 자기고양을 하지 않거나 자기비판적 인지를 하는 일본인(Heine & Hamamura, 2007)과는 달리, 자기고양적인 긍정적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이누미야 외, 1999; 정육, 한규석, 2005; 조공호, 2002; 조공호, 명정완, 2001).

예를 들어 자기특성의 지각에 관한 연구에서 일본 대학생들은 집단주의문화에서 중요한 상호협조적 성향(조화성, 성실성 등)에 관해서만 미약한 긍정적 환상을 갖고 있을 뿐 신체적 특징, 능력 및 개인주의문화에서 중요한 상호독립적 성향(경험으로의 개방성, 사교성

등)에 있어서는 긍정적 환상이 없으며 평균적인 판단경향을 보이거나 오히려 자기비하적 경향을 보였으나(Markus & Kitayama, 1991b; Heine & Lehman, 1997; 伊藤, 1999; 外山, 櫻井, 2001), 한국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자기고양적 지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능력과 상호독립적 성향 및 상호협조적 성향의 모든 면에서 강한 허구적 독특성을 나타냈다(정육, 한규석, 2005; 조공호, 2002; 조공호, 명정완, 2001). 이는 미국 대학생들이나 캐나다 대학생들이 보인 특징과 유사한 것이다.

또한 부정적 사건들에 대한 통제감에 관해서, 한국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통제감 수준은 일본 대학생보다 높았으며, 이는 적어도 캐나다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통제감 수준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이었다(이누미야 외, 1999; Heine & Lehman, 1995).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중, 고, 대학생의 순으로 일의 성패는 개인의 능력(ability), 노력(effort), 기술(skill) 같은 내적 요인에 따라 통제된다는 신념인 내적통제 경향이 점차 감소하고 외적통제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鎌原, 樋口, 1987), 한국에서는 반대로 초, 중, 고등학생의 순으로 내적통제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훈구, 1980). 이 발달방향은 미국에서 보고된 것과 같은 것이다(Lackman, 1986; Lao, 1976; Milgram, 1971; Penk, 1969).

장래에 대한 전망에 관해서도, 일본 대학생들은 자신에게 부정적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비슷한 조건의 타인들에 비해 더 크게 추정하여 비현실적 비관성(unrealistic pessimism)을 드러냈으나(Heine & Lehman, 1995), 한국 대학생들은 캐나다 대학생처럼 비슷한 조건의 타인들에 비해서 부정적인 사건들은 자신에게는 더 적게 일어날 것이라는 신념, 즉 비현실적

낙관성(unrealistic optimism)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누미야 외, 1999).

한국인이 보이는 자기특성, 통제감, 장애에 대한 지각 등에서의 이러한 긍정적 환상은 한국문화를 일본문화와 같은 집단주의문화이며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한 문화라고 가정한다면 기존의 자기관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이누미야, 김윤주, 2006). Taylor와 Brown(1988)이 구분한 자기인식에 관한 긍정적 환상(positive illusions)의 세 가지 하위영역 모두에서 일관되게 드러난 한일 간의 문화차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자기관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미국 내지 캐나다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이 보인 긍정적 환상의 양상은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였지만 한국 대학생이 보인 긍정적 환상의 양상은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이론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 하겠다. 이는 긍정적 환상을 설명하는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이론의 타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이다(이누미야 외, 2007). 이상의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을 같은 집단주의문화로 분류할 수 있고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한 문화로 분류할 수 있다는 가정과 문화적 자기관과 긍정적 환상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가정 중 적어도 하나는 성립하기 어려운 가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이누미야, 김윤주, 2006). 다만, 저자의 입장과는 다르지만 이상과 같은 한일 간의 문화차는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과 긍정적 환상의 관계를 예전대로 가정하면서도 ‘한국인은 북미인 만큼 개인주의화되고(가정 1)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우세해졌지만(가정 2) 일본인은 여전히 집단주의적이고(가정 3)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하기 때문에(가정 4) 나타난 차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다음으로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이론에 입각한 이러한 이론적 가정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겪으면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많이 수용하는 쪽으로 변화한 것은 사실이다(임희섭, 1994; 차재호, 정지원, 1993). 서울에 거주하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20대 집단에서는 반수에 못 미치는 사람들(남 46.3%; 여 44.7%)만이 집합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차재호, 정지원, 1993). 다른 연구에서도 개인주의 성향자로 구분되는 직장인이 응답자의 5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규석, 신수진, 1999). 이러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긍정적 환상에 관한 연구의 주된 대상인 한국 대학생들은 이제 대다수는 아니어도 적어도 과반수 정도는 개인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관련 연구들에 대한 한 메타분석(Oyserman, Coon & Kimmelmeier, 2002)에 의하면 한국인의 개인주의 경향은 북미인보다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인은 북미인 만큼 개인주의화되었다’는 가정 1은 전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자기관도 크게 변한 것인가?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에 관해 한국인과 일본인을 비교한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들은 상호독립적 자기관보다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다소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누미야 외, 1999). 그러나 보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대학생들의 상호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협조적 자기관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영, 이누미야, 김재신, 최일호, 2005). 이들 결과에 의하면 아직 ‘한국인은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우세해졌다(가정 2)’고까지는 말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일본인들의 가치관 변화는 어떠한가? 일본인들도 역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많이 수용하는 쪽으로 변화한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직업을 가진 평균 40세의 일본인은 대학생들보다 집단주의적이며 과거의 일본은 집단주의적이었을 지도 모르나 현재는 의심스럽다는 연구결과가 있다(Matsumoto, Kudoh, & Takeuchi, 1996). 또한 개인주의/집단주의에 관해 통제된 조건 하에서 일본인과 미국인을 비교한 12건의 실증적 연구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일본인은 집단주의적이며 미국인은 개인주의적이다’라고 하는 통설은 지지되지 않았다(高野, 纓坂, 1997). 그리고 앞서서도 언급한 메타분석에 의하면(Oyserman, Coon & Kimmelmeier, 2002) 일본인은 북미인보다 개인주의 경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주의도 북미인보다 오히려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연구수 17건). 따라서 ‘일본인은 여전히 집단주의적이라는 가정(가정 3)’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가정인 것이다.

그러나 일본대학생의 자기관에 대해서는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하다는 가정(가정 4)’을 지지하는 증거들이 있다. 즉, 일본 대학생의 경우는 일관되게 상호독립적 자기관보다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누미야 외, 1999; 조선영 등, 2005; 高田, 大本, 清家, 1996).

요약하면, 일본인에게는 긍정적 환상이 거

의 발견되지 않고 한국인에게는 강한 긍정적 환상이 발견된다는 현상을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이론에 입각하여 ‘한국인은 북미인 만큼 개인주의화되고(가정 1)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우세해졌지만(가정 2) 일본인은 여전히 집단주의적이고(가정 3)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하기 때문에(가정 4) 나타난 차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견해라고 하겠다.

전반적으로 자기고양에 관한 현저한 문화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인에게는 강한 긍정적 환상이 발견되기 때문에 ‘서양인만이 자기고양의 강한 증거를 나타낸다’는 주장(Heine & Hamamura, 2007)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Markus와 Kitayama(1991a)의 문화적 자기관 이론은 독립변수(예를 들어 일본과 미국)와 종속변수(예를 들어 긍정적 환상) 간의 관계를 나타낼 뿐, 그 사이에 Markus와 Kitayama(1991a)가 주장하는 문화적 자기관의 개재를 확인하는 증거는 없으며 문화적 자기관을 문화차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Matsumoto, 1999). 대표적인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척도들(Gudykunst, Matsumoto, Ting-Toomey, Nishida, Kim, & Heyman, 1996; Leung & Kim, 1997; Singelis, 1994)을 사용한 그 동안의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최근의 연구도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개념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Levine, Bresnahan, Park, Lapinski, Wittenbaum, Shearman, Lee, Chung, & Ohashi, 2003). Levine 등(2003)에 의하면 Markus와 Kitayama(1991a)의 이론이 예언하는 서양인(미국인과 캐나다인 및 호주인)과 동양인(일본인, 한국인, 중국인, 및 대만인) 간의 자기관 차이는 약하고 비일관적이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Levine, et al., 2003). 즉, 서양인은 아시아인보다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강하다는 가정과 서양인은 상호협조적 자기관보다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우세하다는 가정만 미약하게나마 지지되었을 뿐, 아시아인은 서양인보다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강하다는 가정과 아시아인은 상호독립적 자기관보다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하다는 가정은 지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인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자기고양에 관한 동아시아인과 서양인의 차이(Heine & Hamamura, 2007)를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Levine 등(2003)에 의하면 Markus와 Kitayama(1991a)의 문화적 자기관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이러한 결과는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개념 자체(그중에서도 특히 상호협조적 자기관 개념)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한국을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우세한 문화 또는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한 문화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긍정적 환상에 관한 한국과 일본 간의 확연한 문화차를 설명하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문화적 자기관의 대체 모델로서 제안된 주체성-대상성 자기 이론(이누미야, 2004; 이누미야, 김윤주, 2006)에 의거하여 한국인과 일본인의 긍정적 환상에 관한 문화차 설명을 시도하겠다.

주체성-대상성 자기 이론

본 이론은 문화적 다양성을 보이는 심리적 과정과 사회적 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틀로서, 대인관계의 분리-연결 차원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영향력의 방향성 차원을 추가한 새로운 문화적 자기

관 모델이다. 본 이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맥락에 대해 설정한 심리적 거리감을 기준으로 자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하나는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경우이며 또 하나는 사회적 맥락과 연결된 존재로서 인식하는 경우이다. 이누미야(2004)는 전자를 자율성 자기(autonomous self)라고 부르기로 했지만, 이는 Markus와 Kitayama(1991a)의 상호독립적 자기(Independent self)에 해당되며 후자는 상호협조적 자기(Interdependent self)에 해당된다.

이 차원은 문화비교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여겨져 왔지만, 개인의 성격 이해에 있어 대인관계의 분리-연결 차원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영향력의 방향성 차원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이론들도 있어왔다(Fromm, 1947; Horney, 1945; Kiesler, 1996). 이 점에 착안하여 이누미야(2004)는 사회적 맥락과 연결된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경우도 대인관계에서 작용하는 영향력의 방향성이라는 관점에서 자기관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자신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심적 존재로 보는 경우와 스스로를 사회적 영향력을 수용하는 주변적 존재로 보는 경우이며, 전자의 자기개념을 주체성 자기(subjective self), 후자의 자기개념을 대상성 자기(objective self)라고 명명하였다.

주체성 자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향성을 중시하며, 내부기원의 준거틀(소원, 이상, 비전 등)에 초점을 맞춘 자기인식을 하고, 관계성 욕구 중에서도 ‘가르치고 싶다’, ‘주관하고 싶다’, ‘선도하고 싶다’, ‘주도하고 싶다’, ‘지배하고 싶다’와 같은 측면이 강하며, ‘형, 오빠, 언니, 누나, 부모, 선배, 리더’와 같은 역할을 선호한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

표 1. 주체성 자기와 대상성 자기의 기본적 요소

	주체성 자기	대상성 자기
자기개념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체	사회적 영향력을 수용하는 대상
목표 지향성	자신의 지향성 중시 “가르치고 싶다”, “주관하고 싶다”, “선도하고 싶다”, “주도하고 싶다”, “지배하고 싶다”	상대의 지향성 존중 “배우고 싶다”, “모시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보좌하고 싶다”, “의존하고 싶다”
관계성 욕구	‘형, 오빠, 언니, 누나, 부모, 선배, 리더’	‘동생, 자녀, 후배, 부하’
선호하는 역할	내부기원의 준거들에 초점 소원, 이상, 비전 등을 형성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외부기원의 준거들에 초점 규범, 의무, 기대 등을 내면화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자기인식의 준거	자신의 가치와 능력 및 장래성을 높게 평가	상대의 가치와 능력 및 장래성을 높게 평가
자기평가 차원	(상대의 가치와 능력 및 장래성을 낮게 평가) “나는 당신보다 우수한 사람이다.” “나는 존경받을 만하다.”	(자신의 가치와 능력 및 장래성을 낮게 평가) “당신은 나보다 우수한 사람이다.” “당신은 존경할 만하다.”
자기통제 차원	원심적(遠心的), 자기현시적 자기외부를 향한 통제성	구심적(求心的), 자기억제적 자기내부를 향한 통제성

및 장래성을 타인보다 높게 평가하며 자기현시적이고 자기외부를 향한 통제성을 주로 발휘한다. 한편 대상성 자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의 지향성을 존중하며, 외부기원의 준거들(규범, 의무, 기대 등)에 초점을 맞춘 자기인식을 하고, 관계성 욕구 중에서도 ‘배우고 싶다’, ‘모시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보좌하고 싶다’, ‘의존하고 싶다’와 같은 측면이 강하며, ‘동생, 자녀, 후배, 부하’와 같은 역할을 선호한다. 그들은 상대의 가치와 능력 및 장래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자기억제적이고 자기내부를 향한 통제성을 주로 발휘한다(이누미야, 2004; 이누미야, 김윤주, 2006).

이러한 틀로 보면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

세한 문화권도 주체성 자기가 우세한 문화와 대상성 자기가 우세한 문화로 구별할 수가 있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양쪽 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표상이 자기개념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회적 관계에 임하는 태도에는 대조적인 차이가 있으며 한국에서 우세한 자기관은 자기 자신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심적 존재로 보는 주체성 자기(subjective self), 일본인에서 우세한 자기관은 스스로를 사회적 영향력을 수용하는 주변적 존재로 보는 대상성 자기(objective self)라고 주장했다(이누미야, 2004).

한국인이 내면화한 문화적 자기관은 주체성 자기이고 일본인이 내면화한 문화적 자기관은 대상성 자기라는 주장은 언어행동, 민족적 정

서, 자기평가 등에 있어 한국과 일본 간에 흥미로운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의거한 것이다(이누미야, 2004; 이누미야, 김윤주, 2006). 어순이나 어휘가 상당히 유사한 한국어와 일본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어에서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수동태, 사역수동, 겸양어가 한국어에서는 아예 없거나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吳善花, 1992; 천수성, 1992). 한국인은 주체로서의 자기에 주로 초점이 있지만, 일본인은 대상으로서의 자기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표현들이 발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특유한 문화적 자기관(즉 대상성 자기)이 유지되는 것이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특징적인 민족적 정서를 나타내는 토착심리학적 개념으로서 한국인은 주체가 대상에게 느끼는 정서이자 주체가 대상에게 주는 마음이라 할 수 있는 ‘정(情)’을 중요시하지만(이규태, 1977; 최상진, 2000; 한규석, 2002), 일본인은 모친에 대한 자녀의 의존이 핵심이 되어 있는 정서적 의존성인 ‘아마에(甘え)’를 중요시한다(土居, 1971). 한국인의 ‘정(情)’도 일본인의 ‘아마에(甘え)’도 그 발달적 기원을 서로에게 강한 애착이 형성되고 공감적이고 친밀하고 자타미분화적인 부모자식관계에서 찾을 수 있지만(土居, 1971; 최상진, 2000), 한국에서는 주체로서의 부모가 느끼는 ‘정(情)’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일본에서는 모친에 의존하는 대상으로서의 자녀가 느끼는 ‘아마에(甘え)’에 중점을 둔 개념화가 이루어진 것이다(이누미야, 2004). 자기평가 측면에서도 한국인이 발달시킨 주체성 자기와 일본인이 발달시킨 대상성 자기를 반영하는 차이가 존재한다. 즉 한국인의 자기평가는 일본인의 자기평가보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한국 대

학생은 일본 대학생보다 자기존중감이 훨씬 높고(조선영 외, 2005),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 대학생들은 일본 대학생들과는 달리 강한 허구적 독특성 지각(정욱, 한규석, 2005; 조공호, 2002; 조공호, 명정완, 2001), 높은 통제감과 비현실적 낙관성 경향을 보인다(이누미야 외, 1999).

연구문제

이상과 같이 이누미야와 김윤주(2006)는 주체성-대상성 자기를 개인 수준의 내면화된 문화로 개념화하였고, 다양한 심리과정과 행동의 문화차를 설명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자기관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자기관 이론의 타당성은 우선 두 가지 자기관의 상대적인 강도에 있어 체계적인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 지에 달려 있다. 즉, 문화적 자기관이 심리과정과 행동의 문화차를 매개하고 설명하는 개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론이 전제로 하는 주체성-대상성 자기의 문화차가 확인되어야만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주체성-대상성 자기 이론이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은 주체성 자기가 우세하고 일본인은 대상성 자기가 우세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예측된 이러한 문화차로부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가설이 도출되며 이들은 주체성-대상성 자기 이론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핵심적인 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가설 1. 한국인의 주체성 자기는 일본인의 주체성 자기보다 강할 것이다.

가설 2. 일본인의 대상성 자기는 한국인의 대상성 자기보다 강할 것이다.

가설 3. 한국인은 대상성 자기보다 주체성 자기가 강할 것이다.

가설 4. 일본인은 주체성 자기보다 대상성 자기가 강할 것이다.

가설 3에 관해서는 이누미야 외(2007)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가 있다. 즉, 한국대학생들의 주체성-대상성 자기의 패턴은 이론적인 예상대로 대상성 자기($M = 3.93$)보다 주체성 자기($M = 4.66$)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가설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조사된 바 없으며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교차타당화 연구는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의 타당도에 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가설들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에서 자기에 관한 긍정적 환상을 설명하는 틀로서 주체성-대상성 자기가 유효한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통제감, 장래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강한 긍정적 환상을 드러내는 지를 확인하고(**가설 5: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통제감, 장래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강한 긍정적 환상을 드러낼 것이다**), 한일 간에 나타난 자기관련 판단의 차이를 한국인이 발달시킨 주체성 자기와 일본인이 발달시킨 대상성 자기로 설명 가능한 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한국처럼 주체성 자기가 우세한 문화에 있어서는,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심적 존재로서의 자격을 자신에게는 물론 타자에게도 확인시키기 위해 자기 안에 자랑할 만한 속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정체성 유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주체성 자

기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내부에 그러한 바람직한 속성을 발견하여 그것들을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우위를 차지하도록 동기화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한국과 같은 주체성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 수준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심리적 기제를 발달시켰을 것이다. 특히, 자신의 바람직한 속성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다. 즉, 그러한 정보에 초점을 맞춰, 그것들에 대해 애착을 보이고 자주 생각하는 심리적 습관이 성립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심리적 습성으로 인해 타자들에 비해 자신의 우수성을 과장되게 지각하게 될 것이다(허구적 독특성).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에 관한 긍정적 환상은 장내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높은 통제감의 주관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통제감에 대한 긍정적 환상은 비현실적 낙관성의 기반이 될 것이다. 한국인이 갖는 자기 특성, 통제감, 장래에 대해 강한 긍정적 환상은, 자신을 독립적 존재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체적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인지적 및 동기적 자기평가과정의 결과물일 것이다.

한편 일본은 대상성 자기가 우세한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그 일부로 간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적 인간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정체성 유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 안에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서 끼워 넣어 가도록 동기화되어 있을 것이다. 사회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기 내부 속성의 평가를 유지하거나 높이는 일은 대상성 자기를 가진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고, 따라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별로 동기화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관계 안에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끼워 넣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중심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암묵적 기대, 명백한 규범, 또는 가치관 등을 간파하여, 그것을 내면화한 외부기원의 준거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결점, 즉 자신이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르는 바람직하지 않은 속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그것을 수정하여 그 관계 안에 자신을 끼워 넣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일본과 같은 대상성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신의 바람직하지 않은 속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다. 즉, 특히 그러한 정보에 초점을 맞춰, 그것들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는 심리적 습관이 성립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에 관한 현실적이거나 자기비판적 지각은 장래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통제감을 낮게 평가하게 하는 심리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통제감에 대한 낮은 평가는 비현실적 비관성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일본인이 자기특성, 통제감, 장래에 대해 긍정적 환상이 거의 없거나 자기비하적 지각을 하는 것은, 자신을 상호협조적 존재로 보기 때문이라기보다, 사회적 관계에서 영향력을 수용하는 대상적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인지적 및 동기적 자기평가과정의 반영일 것이다.

요약하면, **한국인의 경우도 일본인의 경우도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통제감, 장래성에 대해 형성할 긍정적 환상은 주체성 자기와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고, 대상성 자기와는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가설 6).**

이상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는 한일비교 조사의 자료분석에 바탕을 두고, 논의에서는 한

일 비교 성격론의 정교화 및 확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즉, 자기평가 영역 이외의 심리과정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한국인의 주체성 자기와 일본인의 대상성 자기 형성의 가정적 및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방 법

조사 대상자

본 연구에는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한국대학생 158명(남자: 96명, 여자: 62명)과 와세다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일본대학생 131명(남자: 55명, 여자: 76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각각 22.6세(한국대학생; 연령범위 = 18-28세, $SD = 2.4$)와 20.9세(일본대학생; 연령범위 = 18-41세, $SD = 3.5$)였다.

측정도구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이누미야 외, 2007)는 주체성 자기, 대상성 자기 및 자율성 자기를 측정하는 각각 6문항의 하위척도를 포함하는 18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자기에 관한 세 가지 표상은 각각 다음과 같이 개념화 되었다. 즉, 주체성 자기는 한국문화에서 우세한 자기관으로서, 자신을 사회적 맥락과 연결된 존재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심적 존재로 보는 자기개념이다. 대상성 자기는 일본문화에서 우세한 자기관으로서, 자신을 사회적

맥락과 연결된 존재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사회적 영향력을 수용하는 주변적 존재로 보는 자기개념이다. 자율성 자기는 서양 문화에서 강조되는 자기관으로서, 자신을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분리된 독특한 존재로 인식하는 자기개념이다. 일본어판 설문지는 한국어 상용 경험이 10여년이 되는 일본인 연구자가 제작하고 일본어 상용 경험이 10여년이 되는 한국인 연구자의 검증을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각 문항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요청 받았다.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는 이전 연구에서 양호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나타낸 바가 있다(이누미야 외, 2007).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주체성 자기, 대상성 자기 및 자율성 자기를 측정하는 각각 6문항의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의 결과 내적 일치도(Cronbach's α)가 주체성 자기 척도 .77, 대상성 자기 척도 .77, 자율성 자기 척도 .74로 나타나 양호한 내적 일관성을 시사하고 있다. 각 척도의 문항-총점상관의 범위는 .40에서 .65사이였다.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은 상호독립/상호협조적 자기관 척도(高田, 大本, 清家, 1996)와 에니어그램 척도(윤운성, 2001) 및 수평/수직적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 1995)의 문항들과 함께 구성된 문항전집 중에서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개념에 대해 이해하는 4명의 연구원 중 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별된 문항들이다. 이는 타당도의 검사 내용에 기초한 근거(evidence based on test content)로 간주할 수 있다.

각 척도에 대한 주성분분석의 결과는 각 척도의 1요인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는 타당도의 내적 구조에 기초한 근거(evidence based on internal structure)로 간주할 수 있다.

타당도의 다른 변인과의 관계에 기초한 근거(evidence based on relation to other variables)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즉, 주체성 자기 척도는 상호독립적 자기관 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상호협조적 자기관 척도와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자기존중감 척도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정남운, 2004)의 실리형, 지배형, 사교형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순박형, 복종형, 고립형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특히 지배형과는 밀접한 관련성($r = .61$)을 나타냈다. 대상성 자기 척도는 상호협조적 자기 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상호독립적 자기 척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존중감 척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순박형, 복종형, 고립형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실리형, 지배형, 사교형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특히 복종형과는 밀접한 관련성($r = .63$)을 보였다. 자율성 자기 척도는 상호독립적 자기관 척도와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상호협조적 자기관 척도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자기존중감 척도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자율성 자기의 지배형 및 복종형과의 관련성($r = .37, r = -.25$)은 주체성 자기보다는 약하고($r = .61, r = -.41$), 주체성 자기가 친화형 및 사교형과 정적상관을 보인 데 반해, 자율성 자기는 친화형 및 사교형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의 타당도에 관한 수렴 및 판별 근거(convergent and discriminant evidence)로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주체성 자기 척도 .83, 대상성 자기 척도 .81, 자율성 자기 척도 .71로 나타났다. 한국 자료만을 분석한 내적 일치도는 각각 .74, .81, .64였으며, 일본 자료만을 분석한 내적 일치도는 .76, .80, .76이었다.

허구적 독특성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을 얼마나 독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홉 가지 특성(경험에 대한 개방성, 외향성, 협조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외모, 능력, 관계성, 개별성)을 나타내는 45개의 표현을 제시하고(예: '폭 넓은 흥미를 갖는다', '사교적이다', '배려심이 있다' 등), 각각의 내용에 있어 "같은 학교의 동성(同性)의 학생들 중 몇 %가 자기보다 더 우수하다고 생각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각 특성을 측정하는 하위척도는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9개의 하위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한국 자료와 일본 자료 각각에 대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적 일치도(Cronbach's α)의 범위는 각각 .80-.93과 .80-.92였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자들이 해당 특성의 각 문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동일한 비율의 학생들이 자신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5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여 해당 특성에 관한 허구적 독특성의 지표로 삼았다. 또한 9개의 하위척도 전체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한국 자료와 일본 자료 각각에 대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각각 .91과 .91이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참여자들이 각 특성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동일한 비율의 학생들이 자신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9개의 하위척도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전반

적 허구적 독특성의 지표로 삼았다. 이 때 추정된 비율이 낮아서 50%에서 멀어질수록 자기 고양적으로 지각하여 자기의 독특성을 허구적으로 과장하는 지각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며, 반대로 50%에 가까울수록 허구적 독특성 지각이 사라지고 평균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자기를 지각함을 나타낸다(조공호, 2002; Heine & Lehman, 1997).

비현실적 낙관성

본 연구에서는 20문항으로 구성된 Heine과 Lehman(1995)의 비현실적 낙관성 측정 설문지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에서 문화적 차이에 관심을 가진 Heine과 Lehman(1995)은 서로 다른 자기관을 가진 동서양의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지도 모르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그 심각성을 다르게 느낄 것이라는 가정하에 개인지향적 사건(independent event)을 다른 문항(10문항, 예: '앞으로 언젠가 당신은 폐암에 걸릴 것이다', '앞으로 언젠가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직업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등)과 관계지향적 사건(interdependent event)을 다른 문항(10문항, 예: '앞으로 언젠가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을 떠날 것이다', '앞으로 언젠가 당신의 가족들은 당신이 선택한 직업 때문에 당신에 대해 실망할 것이다' 등)를 구별하여 전체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실정을 고려하여 관계지향적 사건(interdependent event)을 다른 문항들을 일부 수정하였다. 비현실적 낙관성의 측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두 가지 종류의 질문을 받았다. 첫 번째는 "당신이 다음 사건을 겪을 가능성을 절대적인 퍼센트로 평정하시오"와 같은 질문이고(질문지 1), 두 번째는 "같은 학교의 동성(同性)의 학생들이 다음 사건을 겪을 가능성

을 절대적인 퍼센트로 평정하시오”와 같은 형식의 질문이다(질문지 2). 비현실적 낙관성은 두 번째 질문지에서 얻은 점수와 첫 번째 질문지에서 얻은 점수의 차로 측정된다(질문지 2의 측정치 - 질문지 1의 측정치).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 수치가 클수록(“부정적인 일은 남보다 자신에게 더 적게 일어날 것이다”) 강한 비현실적 낙관성을 의미한다.

지각된 통제감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위의 질문지 1에 응답할 때, 동시에 각 사건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요청 받았다.

절차

설문 조사는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두 개의 심리학 관련 과목의 수업 장면에서 단체로 실시하였다. 그 중 한국에서의 조사는 저자가 직접 하였으며, 일본에서의 조사는 의뢰를 받은 연구자가 수업담당교수의 허락 하에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은 수업참가의 일환으로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각 집단의 크기는 약 60명에서 80명 사이였다. 설문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15분에서 20분 사이였다. 측정 변인들의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상관 분석, 평균치 차이 검정, 공변량분석, 다중회귀분석 및 각종 기초 통계치를 구하기 위해서 SPSS 12.0을 사용하였다.

결 과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의 교차타당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된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를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일본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의 심리측정학적 특징을 살펴 보았다. 우선 주체성 자기 척도 문항들에 대한 주성분분석의 결과, 6개 문항은 제 1 요인에 .60에서 .72사이의 부하량을 보였다. 제 1 요인은 전체 변량의 43.9%를 설명하고 있었다. 주체성 자기 척도의 평균치는 3.82, 표준편차는 1.00이었다.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체성 자기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6로 나타났다. 문항-총점상관의 범위는 .39에서 .60사이였다. 문항간 상관의 범위는 .03에서 .60사이였으며 평균은 .35이었다.

대상성 자기 척도 문항들에 대한 주성분분석의 결과, 6개 문항은 제 1 요인에 .49에서 .78사이의 부하량을 보였다. 제 1 요인은 전체 변량의 61.3%를 설명하고 있었다. 대상성 자기 척도의 평균치는 4.30, 표준편차는 1.03이었다.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상성 자기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0로 나타났다. 문항-총점상관의 범위는 .35에서 .71 사이였다. 문항 간 상관의 범위는 .17에서 .73 사이였으며 평균은 .41이었다.

자율성 자기 척도 문항들에 대한 주성분분석의 결과, 6개 문항은 제 1 요인에 .57에서 .77사이의 부하량을 보였다. 제 1 요인은 전체 변량의 46.5%를 설명하고 있었다. 자율성 자기 척도의 평균치는 4.61, 표준편차는 1.01이었다.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율성 자기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6로 나타났다. 문항-총점상관의 범위는 .41에서 .60 사

표 2.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문항의 구조 계수 행렬(일본대학생 집단)

문 항	M (SD)	요인 1	요인 2	요인 3
		대상성 자기	자율성 자기	주체성 자기
모든 상황에 대한 리더적인 통제력을 갖는 것이 내게 중요하다.	3.68 (1.40)			.61
나는 다른 사람들을 내 뜻에 따르게 할 수 있다.	3.40 (1.47)			.64
자기주장이 강하고 뛰어나기 위해 노력한다.	3.85 (1.48)	-.55		.47
나는 남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고 싶다.	4.88 (1.38)			.36
나는 남들에게 나의 영향을 주는 데 있어 타고난 소질이 있다.	3.45 (1.37)			.59
종종 '힘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될 필요를 느낀다.	3.63 (1.72)			.72
나 혼자서 새로운 것을 탐색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4.85 (1.53)		.54	
나는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편하다.	4.50 (1.61)		.72	
나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4.91 (1.55)		.66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4.87 (1.33)		.50	
무엇을 하든지 나의 즐거움과 만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3.92 (1.69)		.51	
나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4.60 (1.20)		.68	
나는 리더라기보다 따라가는 사람이다.	4.53 (1.42)	.55		-.55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두드러질 때, 불편해진다.	3.93 (1.57)	.28 ^a		-.33
모임에서 리더가 되기보다는 보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5.05 (1.45)	.44		-.46
누군가에게 무엇을 시키는 것보다는 누가 나에게 무엇을 시켜주는 것이 편하다.	4.34 (1.60)	.69		-.37
의견이 충돌될 때, 주로 상대방의 의견을 따른다.	4.02 (1.28)	.90		
나는 친구들이 결정한 일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거의 그대로 따르는 편이다.	3.95 (1.33)	.78		
고 유 근		3.46	2.34	1.62
총 변산 비율		19.2%	13.0%	9.0%
Cronbach's α		.80	.76	.76
요인 평균		4.30	4.61	3.82
(표준편차)		(1.03)	(1.01)	(1.00)

^a 이 구조 계수를 제외하고 .30 미만의 구조 계수는 생략함.

이었다. 문항 간 상관의 범위는 .22에서 .53 사이였으며 평균은 .35였다.

다음으로 일본대학생 자료를 대상으로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18개의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측정 문항들에 대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에 의한 사각 회전(Direct Oblimin 방식) 요인분석의 결과 얻어진 구조계수행렬(structure matrix)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한국자료에서 얻은 결과(이누미야 외, 2007)와 유사한 요인구조가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문항들은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차원에 최대이면서 동시에 절대치로 .40 이상의 구조 계수(factor structure loading)를 보였다. 단, 주체성 자기 척도에 속하는 한 문항(“자기주장이 강하고 뛰어나기 위해 노력한다”)과 대상성 자기 척도에 속하는 한 문항(“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두드러질 때, 불편해진다”)은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요인에도 비교적 높은 구조계수를 보였으나,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차원이 아닌 요인에 더 높은 구조 계수를 보였다. 그러나 전자는 문항-총점상관이 .46이었고 주체성 자기 척도 문항들에 대한 주성분분석에서 제 1 요인에 .72의 부하량을 보인 문항이고, 후자는 문항-총점상관이 .35였고 대상성 자기 척도 문항들에 대한 주성분분석에서 제 1 요인에 .49의 부하량을 보인 문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척도에 포함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다.

전체 변량 중에서 제 1 요인(대상성 자기)은 약 19.2%를, 제 2 요인(자율성 자기)은 약 13.0%를, 제 3 요인(주체성 자기)은 약 9.0%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한국자료(이누미야 외, 2007)에서는 주체성 자기가 제 1 요인, 자율성 자기가 제 2 요인, 대상성 자기는 제 3 요인이었으나, 일본자료에

서는 대상성 자기가 제 1 요인이었고 주체성 자기는 제 3 요인이었다.

각 척도 간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 주체성 자기와 대상성 자기 간에는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r = -.46, p < .001$, 한국자료(이누미야 외, 2007)에서와는 달리 주체성 자기와 자율성 자기 간에는 상관이 없었으며, $r = .06, ns$, 대상성 자기와 자율성 자기 간에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r = -.03, ns$.

참고로 본 연구의 한국자료에서는 주체성 자기와 대상성 자기 간에는 부적 상관이 있었고, $r = -.57, p < .001$, 주체성 자기와 자율성 자기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r = .26, p < .01$, 대상성 자기와 자율성 자기 간에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r = -.27, p < .05$. 이전 연구의 한국자료(이누미야 외, 2007)에서는 주체성 자기와 대상성 자기 간에는 부적 상관($r = -.49$)이 있었고, 주체성 자기와 자율성 자기 간에는 정적 상관($r = .51$)이 있었으며, 대상성 자기와 자율성 자기 간에는 부적 상관($r = -.28$)이 있었다.

표본의 비교가능성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일본대학생 집단($M = 20.9$)은 한국대학생 집단($M = 22.6$)보다 평균 연령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t(287) = 4.73, p < .001$. 그러나 한국 자료와 일본 자료 각각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과 주체성 자기, 대상성 자기 및 자율성 자기 간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자료: $r = .10, r = -.04, r = .06, ns$; 일본 자료: $r = -.05, r = -.01, r = .10, ns$). 그래서 연령차는 자기관의 문화비교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사려된다.

다음으로 한국대학생 집단에는 39.2%의 여학생($n = 62$)이 포함되어 있고, 일본대학생 집단에는 58.0%의 여학생($n = 76$)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비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chi^2(1, N = 289) = 10.12, p < .001$. 즉, 한국대학생 집단보다 일본대학생 집단의 여학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자료와 일본 자료 각각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본 자료에서는 성과 주체성 자기, 대상성 자기 및 자율성 자기 간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 = -.03, r = .13, r = .04, ns$, 한국 자료에서도 성과 주체성 자기 및 자율성 자기 간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13, r = -.05, ns$. 그러나 한국 자료에서는 성과 대상성 자기 간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대상성 자기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r = .20, p < .05$. 따라서 자기관의 문화비교에 있어 대상성 자기의 한일비교에서는 성차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 가지로 한국 자료와 일본 자료 각각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 및 성별과 지각된 통제감 및 비현실적 낙관성 간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및 성별과 허구적 독특성 간에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한국 자료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허구적 독특성 지각이 강하고, $r = -.23, p < .01$, 여자보다 남자가 더 허구적 독특성 지각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r = -.27, p < .01$. 일본 자료에서는 연령과 허구적 독특성 지각 간에는 상관이 없었으나, $r = -.05, ns$, 여자보다 남자가 더 허구적 독특성 지각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r = -.20, p < .05$. 따라서 긍정적 환상의 문화비교에 있어 허구적 독특성 지각의 한일비교에서는 연령 및 성차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체성-대상성 자기의 한일비교

주체성 자기에 관한 한일비교를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한국대학생($M = 5.06, SD = .84$)은 일본대학생($M = 3.82, SD = 1.00$)보다 주체성 자기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t(287) = 11.42, p < .001$. 즉, 한국인의 주체성 자기는 일본인의 주체성 자기보다 강할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문화(국적)에 따른 대상성 자기의 차이에 대해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문화에 따라 대상성 자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286) = 16.56, p < .001$. 즉, 가설 2의 예상대로 일본인의 대상성 자기(조정된 평균 = 4.27, $SE = .09$)는 한국인의 대상성 자기(조정된 평균 = 3.76, $SE = .08$)보다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공변인인 성별에 따라 대상성 자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1, 286) = 8.40, p < .01$, 이를 조정한 후 문화에 의한 대상성 자기의 설명량은 9.6%였다.

한국인의 주체성 자기와 대상성 자기를 비교하기 위해 짝진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대학생은 대상성 자기($M = 3.73, SD = 1.06$)보다 주체성 자기($M = 5.06, SD = .84$)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t(157) = 9.91, p < .001$. 다음으로 일본인의 주체성 자기와 대상성 자기를 비교하기 위해 짝진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일본대학생은 주체성 자기($M = 3.82, SD = 1.00$)보다 대상성 자기($M = 4.30, SD = 1.03$)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t(130) = -3.19, p < .01$. 따라서 가설

표 3. 주체성-대상성 자기의 평균비교

집단	주체성 자기		대상성 자기		t
	M	SD	M	SD	
한국대학생 집단 (n = 158)	5.06	(.84)	3.73	(1.06)	9.91***
일본대학생 집단 (n = 131)	3.82	(1.00)	4.30	(1.03)	-3.19**

p < .01, *p < .001.

3, 4는 지지되었다.

긍정적 환상의 한일비교

허구적 독특성

한국대학생 집단과 일본대학생 집단이 전반적으로 허구적 독특성을 나타내는 지를 알아본 결과 한국대학생 집단(M = 35.23, SD = 14.78)은 유의미한 허구적 독특성을 나타냈으나, $t(157) = -12.56, p < .001$, 일본대학생 집단(M = 50.39, SD = 14.23)은 그러한 편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t < 1$.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일본 대학생 집단(M = 20.9)은 한국 대학생 집단(M = 22.6)보다 평균 연령이 낮고, 한국대학생 집단(39.2%)보다 일본대학생 집단의 여학생 비율(58.0%)이 높는데, 허구적 독특성과 연령 및 성별 간에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r = -.24, r = -.29, p < .001$. 즉, 연령이 높을수록 허구적 독특성 지각이 강하고, 여자보다 남자가 더 허구적 독특성 지각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위의 결과가 한국대학생 집단과 일본대학생 집단 간의 평균연령과 성비의 차이에 의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은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연령과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문화에 따른 허구적 독특성 지각의 차이에 대해 공변량분

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화에 따라 허구적 독특성 지각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285) = 58.02, p < .001$. 즉, 가설 5의 예상대로 한국인의 허구적 독특성 지각(조정된 평균 = 36.06, $SE = 1.15$)은 일본인의 허구적 독특성 지각(조정된 평균 = 49.38, $SE = 1.27$)보다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연령에 의한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F(1, 285) = 1.62, ns$, 공변인인 성별에 따라 허구적 독특성 지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1, 285) = 13.55, p < .001$, 이를 조정한 후 문화에 의한 허구적 독특성 지각의 설명량은 26.2%였다. 결론적으로 한국대학생 집단은 평균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들(경험에 대한 개방성, 외향성, 협조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외모, 능력, 관계성, 개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자기보다 우수한 학생은 전체의 3분의 1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고양적으로 지각하여 자기의 독특성을 허구적으로 과장하는 지각 경향이 있는 반면, 일본대학생 집단은 평균적으로 그러한 전반적인 허구적 독특성 지각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또는 보다 객관적으로 자기를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9가지 특성(경험에 대한 개방성, 외향성,

표 4. 독특성 지각의 평균 및 표준편차

특성	한국대학생 집단 (n = 158)		t	일본대학생 집단 (n = 131)		t
	M	SD		M	SD	
경험에 대한 개방성	33.41	(19.42)	-10.74***	49.86	(18.49)	-.08
외향성	36.43	(19.01)	-8.97***	57.71	(18.52)	4.77***
협조성	32.97	(18.95)	-11.29***	46.06	(18.22)	-2.47*
성실성	36.76	(19.85)	-8.38***	44.55	(19.76)	-3.16**
정서적 안정성	34.87	(18.64)	-10.20***	46.42	(17.44)	-2.35*
외모	36.17	(21.29)	-8.16***	56.25	(20.20)	3.54**
능력	36.90	(18.58)	-8.86***	53.02	(17.70)	1.96
관계성	34.02	(17.85)	-11.25***	48.65	(17.28)	-.89
개별성	35.52	(18.82)	-9.67***	50.94	(18.77)	.58
전체적 허구적 독특성	35.23	(14.78)	-12.56***	50.39	(14.23)	-.31

* $p < .05$, ** $p < .01$, *** $p < .001$.

협조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외모, 능력, 관계성, 개별성) 각각에 대해 한국대학생들과 일본대학생들이 허구적 독특성을 나타내는 지를 살펴보았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대학생들은 모든 특성에 관해 강한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이전 연구의 결과들과 일관된 것이다(조궁호, 2002; 조궁호, 명정완; 2001).

한편 일본대학생들은 흥미롭게도 경험에 대한 개방성(49.86%), 능력(53.02%), 관계성(48.65%), 개별성(50.94%)에 대해서는 평균적인 자기 지각을 보였으나, 협조성(46.06%), 성실성(44.55%), 정서적 안정성(46.42%)에 대해서는 미약하지만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을 드러낸 반면, $t(130) = -2.47$, $t = -3.16$, $t = -2.35$, $p < .05$, $p < .01$, $p < .05$, 외향성(57.71%)과 외모(56.25%)에 대해서는 약한 자기비하적 지각 경향을 나타냈다, $t = 4.77$, $t = 3.54$, $p < .001$, $p < .01$. 이는 이전 연구의 결과들과 일관된 것이다(伊藤, 1999; 外山, 櫻井, 2001).

지각된 통제감

부정적 사건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에 있어서 한국대학생과 일본대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한국대학생($M = 3.82$, $SD = .55$)은 일본대학생($M = 3.47$, $SD = .51$)보다 강한 전반적인 지각된 통제감을 나타냈다, $t(287) = 5.55$, $p < .001$. 개인지향적 사건(independent event)과 관계지향적 사건(interdependent event)을 구별하여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한국대학생($M = 3.84$, $SD = .58$; $M = 3.80$, $SD = .60$)은 일본대학생($M = 3.49$, $SD = .52$; $M = 3.45$, $SD = .59$)보다 강한 지각된 통제감을 나타냈다, $t = 5.33$, $t = 4.96$, $p < .001$. 이러한 지각된 통제감의 문화차는 이전의 비교문화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이누미야 외, 1999; Heine & Lehman, 1995).

비현실적 낙관성

비현실적 낙관성의 존재 여부에 대해 알아

표 5. 비현실적 낙관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한국대학생 집단 (n = 158)		일본대학생 집단 (n = 131)		t
	M	SD	M	SD	
개인지향적 사건					
자기 평가	21.77	(11.33)	30.96	(11.63)	-6.78***
타인 평가	29.70	(11.95)	34.11	(13.14)	-2.99**
차이	7.92	(11.84)	3.15	(13.59)	3.19**
관계지향적 사건					
자기 평가	19.95	(13.75)	30.46	(14.53)	-6.31***
타인 평가	26.14	(11.93)	27.61	(12.74)	-1.01
차이	6.19	(13.86)	-2.85	(15.27)	5.28***
전체적 비현실적 낙관성	7.06	(11.39)	.15	(13.16)	4.86***

** $p < .01$, *** $p < .001$.

보기 위해 사건 유형별(개인지향적 사건과 관계지향적 사건) 집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그 결과 개인지향적 사건에 대해 한국대학생(M = 7.92)은 일본대학생(M = 3.15)보다 강한 비현실적 낙관성을 나타냈다, $t(287) = 3.19, p < .01$. 한편 관계지향적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대학생(M = 6.19)은 유의미한 비현실적 낙관성을 나타냈으나, $t(157) = 8.40, p < .01$, 일본대학생(M = -2.85)은 반대로 비현실적 비관성을 나타냈다, $t(130) = -2.14, p < .05$. 이러한 비현실적 낙관성의 문화차 역시 이전의 비교문화연구의 결과와 일관된 것이다(이누미야 외, 1999; Heine & Lehman, 1995). 이상과 같이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통제감, 장래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강한 긍정적 환상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언한 가설 5를 강하게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와 긍정적 환상 간의 상관관계

세 가지 긍정적 환상을 경험하는 정도를 주체성-대상성 자기 등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관으로 예언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허구적 독특성 점수는 원래 자기보다 우수한 학생에 대해 추정된 비율이 50%보다 낮아질수록 강한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점수가 클수록 강한 긍정적 환상을 의미하는 지각된 통제감 및 비현실적 낙관성 변수와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 이 분석에서는 점수가 클수록 강한 허구적 독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수를 전환하여 사용하였다(새 점수 = 100 - 원래 점수).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와 긍정적 환상 간의 상관관계는 표 6에 요약하였다.

표 6.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와 긍정적 환상 간의 상관관계

	허구적 독특성	지각된 통제감	비현실적 낙관성
한국대학생 집단($n = 158$)			
주체성 자기	.21**	.29***	.22**
대상성 자기	-.28***	-.26**	-.18*
자율성 자기	.14	-.01	-.07
일본대학생 집단($n = 131$)			
주체성 자기	.35***	.25**	.34***
대상성 자기	-.38***	-.21*	-.23**
자율성 자기	.13	.11	.01

* $p < .05$, ** $p < .01$, *** $p < .001$.

예상했던 대로 한국대학생 집단에서도 일본 대학생 집단에서도 강한 주체성 자기를 가진 사람일수록 세 가지 긍정적 환상을 모두 보다 강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한국대학생 집단에서는 주체성 자기와 허구적 독특성, 지각된 통제감 및 비현실적 낙관성은 각각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r = .21$, $r = .29$, $r = .22$, $p < .01$, $p < .001$, $p < .01$, 일본대학생 집단에서도 주체성 자기와 허구적 독특성, 지각된 통제감 및 비현실적 낙관성은 각각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r = .35$, $r = .25$, $r = .34$, $p < .001$, $p < .01$, $p < .001$. 한편 대상성 자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세 가지 긍정적 환상은 모두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한국대학생 집단에서는 대상성 자기와 허구적 독특성, 지각된 통제감 및 비현실적 낙관성은 각각 부적상관을 나타냈으며, $r = -.28$, $r = -.26$, $r = -.18$, $p < .001$, $p < .01$, $p < .05$, 일본대학생 집단에서도 대상성 자기와 허구적 독특성, 지각된 통제감 및 비현실적 낙관성은 각각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r = -.38$, $r = -.21$, $r = -.23$, $p < .001$, $p < .05$, $p < .01$. 그러나 자율성 자

기와 허구적 독특성, 지각된 통제감 및 비현실적 낙관성 간의 상관은 한국대학생 집단과 일본대학생 집단 양쪽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all $p_s > .05$). 요약하면 가설 6의 예상대로 한국인의 경우도 일본인의 경우도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통제감, 장래성에 관해서 형성할 긍정적 환상은 주체성 자기와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고, 대상성 자기와는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 지지되었다.

앞에서 분석한 결과는 자기관과 긍정적 환상 간의 개별적 관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그 성격상 긍정적 환상을 규정하는 자기관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 과제는 예측변인으로서 자기관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밝히는 일일 것이다. 여기서는 긍정적 환상을 규정하는 각 자기관의 중요성이 긍정적 환상 유형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 조절효과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긍정적 환상 유형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자료를 통합하여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를

예언변인으로 하고 허구적 독특성, 지각된 통제감 및 비현실적 낙관성과 각각의 하위유형들을 준거변인으로 삼아 따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최종 결과(표준화된 회귀계수와 설명변량)는 요약해서 표 7, 8에 제시하였다.

표 7,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볼 때, 긍정적 환상 유형에 따라 규정 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허구적 독특성의 경우 주체성 자기가 가장 중요한 촉진요인이었으며, $\beta = .32, p < .001$, 대상성 자기는 억제요인이었다, $\beta = -.20, p < .01$. 그리고 자율성 자기도 촉진요인인 것으로 나타났

다, $\beta = .11, p < .05$. 설명량은 약 25.4%이었다. 지각된 통제감의 경우는 주체성 자기만이 중요한 촉진요인이었으며, $\beta = .39, p < .001$, 설명량은 약 14.9%이었다. 비현실적 낙관성의 경우도 주체성 자기만이 중요한 촉진요인이었으며, $\beta = .38, p < .001$, 설명량은 약 14.1%이었다. 하위유형별로 검토한 결과, 주체성 자기는 긍정적 환상의 모든 하위유형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상성 자기의 영향은 보다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율성 자기도 자기특성의 일부영역에서는 허구적 독특성의 규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허구적 독특성의 하위유형에 따른 자기관에 대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자기관	허구적 독특성									
	전체	개방성	외향성	협조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외모	능력	관계성	개별성
주체성 자기	.32***	.25***	.43***	.22***	.15*	.17*	.46***	.28***	.23**	.24***
대상성 자기	-.20**	-.21**	-.20**			-.14*		-.25***	-.17*	-.27***
자율성 자기	.11*	.15**			.15*	.20**		.13*		.20***
R^2	.254	.212	.313	.050	.057	.135	.214	.259	.124	.281

* $p < .05$, ** $p < .01$, *** $p < .001$.

표 8. 지각된 통제감과 비현실적 낙관성의 하위유형에 따른 자기관에 대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자기관	지각된 통제감			비현실적 낙관성		
	전체	개인지향적 사건	관계지향적 사건	전체	개인지향적 사건	관계지향적 사건
주체성 자기	.39***	.39***	.26***	.38***	.34***	.27***
대상성 자기			-.13*			-.13*
자율성 자기						
R^2	.149	.150	.124	.141	.117	.131

* $p < .05$, *** $p < .001$.

논 의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폭넓게 드러난 자기평가의 차이들을 조명함으로써 자기에 관한 긍정적 환상의 문화차를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에 의해 설명하려는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긍정적 환상의 문화차를 설명하는 대체 모델인 주체성-대상성 자기 이론을 한국대학생과 일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일본인을 대상으로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의 교차타당화를 시도하였고, 주체성-대상성 자기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대로 두 가지 자기관의 상대적인 강도에 있어 체계적인 차이가 실제로 한국인과 일본인 간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후 주체성-대상성 자기와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에 대한 사회적 비교, 여러 사건들에 대한 개인적 통제감 및 자신의 장래성 판단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사용가능한 타당한 척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론적 예상대로 한국인의 주체성 자기는 일본인의 주체성 자기보다 강하고 일본인의 대상성 자기는 한국인의 대상성 자기보다 강했으며, 한국인은 주체성 자기가 대상성 자기보다 강하고 일본인은 주체성 자기보다 대상성 자기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한국인이 내면화한 문화적 자기관은 주체성 자기이고 일본인이 내면화한 문화적 자기관은 대상성 자기라는 주장은 경험적 자료에 의해 지지된 것이다. 또한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통제감, 장래성이라는 측면에서 한일 간에 나타난 자기관련 판단의 차이는 한국인이 발달시킨 주체성 자기

와 일본인이 발달시킨 대상성 자기로 설명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한국인의 경우도 일본인의 경우도 허구적 독특성 지각, 사건에 대한 통제감, 비현실적 낙관성과 같은 긍정적 환상은 실제로 개인이 내면화한 주체성 자기와 정적 상관이 있고 대상성 자기와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대인관계의 분리-연결 차원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영향력의 방향성 차원을 추가한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이론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보이는 긍정적 환상의 문화차를 일관되게 설명함으로써, 심리적 과정과 사회적 행동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적 자기관 이론으로서의 일정한 타당성과 유용성을 구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조사자료의 분석결과에 의거해서 한일 비교 성격론의 정교화 및 확장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주체성-자율성 자기의 변별성 문제

선행 연구에서는 새로 개념화한 주체성 자기 척도와 상호독립적 자기관을 개념적으로 계승한 자율성 자기 척도의 관련변인들과 갖는 상관패턴이 부분적으로 유사했기 때문에 주체성 자기가 자율성 자기(또는 상호독립적 자기관)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개념인지 분명치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었으며 주체성-자율성 자기의 변별성은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였다(이누미야 외, 2007). 물론 주체성 자기 척도와 자율성 자기 척도의 변별성에 관한 일정한 근거로 간주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주체성 자기와 자율성 자기 간의 상관($r = .51$)은 동일 개념임을 강하게 의심할 정도로 높지는 않았으며 문항

내용의 차이도 분명해 보였다. 또한 주체성 자기가 대인관계의 (분리-)연결 차원과 관련이 있는 친화형 및 사교형의 대인관계 특성들과 정적상관을 보인 데 반해, 자율성 자기는 친화형 및 사교형의 대인관계 특성들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이누미야 외, 2007). 본 연구에서는 주체성 자기 척도와 자율성 자기 척도의 변별성에 관한 몇 가지 추가적인 근거 자료가 얻어졌다. 즉, 본 연구에서는 한국자료에서도 주체성 자기와 자율성 자기 간의 정적상관($r = .26$)이 선행연구 때보다 낮았으며, 일본자료에서는 주체성 자기와 자율성 자기 간에는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통제감, 장래성 판단이라는 측면에서의 자기고양 편향(또는 긍정적 환상)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상호독립적 자기관을 개념적으로 계승한 자율성 자기는 아주 제한적인 예언력 밖에 갖고 있지 않았지만 주체성 자기는 일관되게 예언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긍정적 환상을 갖는 것은, 자신을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분리된 독특한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자신을 사회적 맥락과 연결된 존재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심적 존재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실을 감안하면, 그동안의 비교문화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한국인을 제외한 동양인과 서양인 사이에 존재하는 자기고양에 관한 현저한 문화차(Heine & Hamamura, 2007)도 대인관계의 분리-연결 차원을 반영한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영향력의 방향성 차원을 반영한 주체성-대상성 자기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일 가능성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이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폭넓은 비교문화 연구를 통한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때의 핵심적 문제는 서구의 경우도, 한국과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긍정적 환상은 자율성 자기에 의해서보다 주체성 자기에 의해서 더 잘 설명되는 지를 검토하는 일이다.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이론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서양인을 포함한 비교문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려 된다.

자기귀인 및 자기제시로의 이론적 확장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자기과정 중에서 자기개념과 자기평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이론을 자기개념에서 자기평가를 거쳐 자기귀인 및 자기제시로까지 확장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많은 한국인처럼 강한 주체성 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바람직한 속성에 대한 선택적 초점화를 통해 자신의 우수성을 과장되게 지각하게 되고(허구적 독특성 지각) 장내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높은 통제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비현실적 낙관성이 생긴다. 이러한 긍정적으로 왜곡된 자기평가의 결과로서 귀인적 추론에 있어서 자기고양 편파가 초래된다고 생각된다. 즉, 자신에게 자기가 기대했던 바람직한 사건(예를 들어 성공)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바람직한 내부속성(예를 들어 높은 능력)을 쉽게 연상하는 데 반해, 자기가 기대 안했던 바람직하지 않은 일(예를 들어 실패)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부정적인 내부속성은 별로 연상이 안 되고, 동시에 그것과 상반되는 자신의 바람직한 속성(예를 들어 높은 능력)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모순을 해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외적 요인을 추측하여 확인하려 하는 것이다. 성공했을 때의 자기고양적 귀인은 주체성 자기를 확인하는 효과가 있으며 실패했을 때의 자기방어적 귀인은 주체성 자기의 손상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김혜숙(1995)의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은 개인과제 수행상황에서 실패에 대한 능력 귀인보다 성공에 대한 능력 귀인이 더 강한 자기고양적 귀인을 나타내 보였다. 또한 자기고양적으로 설명된 성공에 대한 기억은 주체성 자기를 확증해주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기억보다 잘 보지될 것이고 이러한 자기고양적 해석과 선택적 기억은 다시 자기특성과 통제감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는 또한 장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개념(주체성 자기) → 자기평가(긍정적 환상) → 자기귀인(자기고양적이거나 자기방어적 귀인) → 자기개념으로 다시 순환하는 내적 자기과정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내적 과정은 사회적인 자기제시 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김혜숙(1995)의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보인 자기고양적 귀인은 익명의 귀인 상황에서보다 공개적 상황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즉, 피험자들은 자신과 같은 과제를 수행한 타인들이 듣는 상황에서도 “겸양지덕” 등의 사회규범에 의해 이러한 경향을 통제하고 절제하기 보다는 더욱 자기를 긍정적으로(자기고양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주체성 자기라는 개념이 관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성 자기의 고양육구는 순수하게 개인적 상황에서보다 사회적 상황에서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익명의 경우에는 자기고양적 과제평가

를 보이지 않았으나, 공개적 평가 상황에서는 가장 뚜렷한 자기고양적 평가(즉, 성공했을 때는 과제를 보다 정확한 것으로 평가하고, 실패했을 때는 보다 덜 정확하다고 평가함)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사적으로는 자기를 높이는 방식으로 귀인하지 않는데 남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보다 뚜렷이 자기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제시하려는 경향은, 남들 앞에서는 자신감의 결여를 은폐하고 과시 포장하려는 “허세”라는 방어기제(박영숙, 1990)로 보인다(김혜숙, 1995). “허세”라는 기제로 방어하려는 대상은 물론 한국인의 주체성 자기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많은 일본인처럼 강한 대상성 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면화한 외부기준의 준거틀(규범, 의무, 기대)과 비교한 자신의 바람직하지 않은 속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우수성을 과장되게 지각하지는 않고(허구적 독특성 지각의 부재) 장내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낮은 통제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비현실적 낙관성은 약하고 부분적이며 사건유형에 따라서는 비현실적 비관성이 생긴다. 이러한 객관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왜곡된 자기평가의 결과로서 귀인적 추론에 있어서 자기비판적 편파가 초래된다고 생각된다. 즉, 자신에게 자기가 기대했던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예를 들어 실패)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내부속성(예를 들어 낮은 능력)을 쉽게 연상하는데 반해, 자기가 기대 안했던 바람직한 일(예를 들어 성공)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긍정적인 내부속성은 별로 연상이 안 되고, 동시에 그것과 상반되는 자신의 바람직하지 않은 내부속성(예를 들어 낮은 능

력)이 연상되기 때문에, 그 모순을 해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외적 요인을 추측하여 확인하려 하는 것이다. 성공했을 때의 겸양적 귀인은 대상성 자기를 확인하는 효과가 있으며 실패했을 때의 자기비판적 귀인은 대상성 자기의 향상(또는 개선)을 지향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타야마(北山, 1998)에 의하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고양적-자기방어적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고 성공을 운이나 과제의 난이도에 귀속시키고 실패는 능력이나 노력 부족에 귀인시키는 자기비판적 경향이 현저하며 편의적 실험과제를 사용한 연구의 대부분에서 능력은 성공보다도 실패의 원인으로 지각되어 있었다. 또한 대상성 자기를 확증해주는 실패에 대한 기억은 성공에 대한 기억보다 잘 보존될 것이고 이러한 자기비판적 해석과 선택적 기억은 다시 자기특성과 통제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는 또한 장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개념(대상성 자기) → 자기평가(현실적이거나 부정적 자기 지각) → 자기귀인(겸양적이거나 자기비판적 귀인) → 자기개념으로 순환하는 내적 자기과정의 성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내적 과정은 역시 일본인의 사회적인 자기제시 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일본인의 자기비판적 경향은 익명성이 보장된 경우에서도 나타나지만, 공개적인 상황에서 특히 강해진다(北山, 1998). 이는 대상성 자기라는 개념이 관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성 자기의 겸양적이거나 자기비판적 인지과정은 사회적 상황에서 더 과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체성-대상성 자기와 자기귀인 및 자기제시 행동의 관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실

증적인 연구를 통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인의 주체성 자기와 일본인의 대상성 자기 형성의 가정적 배경

한국인이 문화적 자기관으로 주체성 자기를 내면화하고 일본인이 대상성 자기를 내면화하게 된 하나의 요인으로 한국과 일본의 가정적 배경의 차이를 들 수가 있다. 즉, 양육태도의 차이 때문에 상이한 문화적 자기관이 형성된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한국부모와 일본부모의 자녀양육태도를 비교한 연구들에 의하면 이상적인 자녀상, 자녀의 장래에 대한 기대 및 기대되는 자녀의 학력(學歷) 측면에서 주체성 자기와 대상성 자기 형성에 관련이 있어 보이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상적인 자녀상

한국과 일본에서 취학 전 아동의 어머니들에게 “귀하는 자녀를 어떤 아동으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고 여러 항목 중에서 가장 가까운 항목을 하나만 선택하게 하였다(須永, 青木, 趙, 2005). 그 결과를 보면, 한국의 어머니들(1598명)이 갖는 이상적인 자녀상은, 1위 책임감이 강한 어린이(25.3%), 2위 적극적인 어린이(21.4%), 3위 예의바른 어린이(13.2%), 4위 친구가 많은 어린이(9.6%), 5위 자립하는 어린이(9.2%)의 순이었다. 한편, 일본의 어머니들(1019명)이 갖는 이상적인 자녀상은, 1위 동정심이 강한 어린이(56.8%), 2위 자립하는 어린이(10.2%), 3위 친구가 많은 어린이(10.1%), 4위 끈기 있는 어린이(3.6%), 5위 협조성이 강한 어린이(3.0%)의 순이었다.

양국에 공통적인 것은 자립하면서 친구가

많은 어린이의 모습이지만, 인간관계에서의 바람직한 모습에 있어서는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약 50%의 한국 어머니들은 책임감이 강하거나 적극적인 어린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 반해, 과반수의 일본 어머니들은 동정심이 강한 어린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책임감이 강한 어린이와 적극적인 어린이를 선택한 일본 어머니는 각각 2.1%와 2.5% 밖에 없었고, 동정심이 강한 어린이를 선택한 한국 어머니도 0.1% 밖에 없었다.

한국인의 자기관은 자신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심적 존재로 보며 자신의 지향성을 중시하는 주체성 자기(subjective self)이고, 일본인의 자기관은 스스로를 사회적 영향력을 수용하는 주변적 존재로 보며 상대의 지향성을 존중하는 대상성 자기(objective self)이다. 한국 어머니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책임감이 강하고 적극적인 어린이는 한국인의 주체성 자기가 반영된 어린이의 모습인 데 반해, 일본 어머니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정심이 강한 어린이는 일본인의 대상성 자기를 투영한 어린이의 모습이다.

그런데 “동정심이 강한”에 해당되는 일본어는 “오모이야리노 아루(思いやりのある)”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한국어판과 일본어판을 각각 확인하였다.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국어의 “동정심”이라는 말은 불쌍하거나 가엾은 상대에 대해 주로 쓰는 말이지만, 일본어의 “오모이야리(思いやり)”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좀 더 폭 넓은 상대에 대해 쓰는 말이다. “오모이야리(思いやり)”는 남을 헤아리는 마음 또는 배려심에 더 가깝다. 만약 “동정심이 강한 어린이” 대신에 “배려심이 많은 어린이” 또는

“남을 헤아릴 줄 아는 어린이”라는 말을 썼더라면 이 항목을 선택하는 한국의 어머니들이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한국 어머니들이 “책임감이 강하고 적극적인 어린이”보다 “배려심이 많은 어린이”를 더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다. 역시 “책임감이 강하고 적극적인 어린이”가 한국의 전형적인 이상적 자녀상임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1980년대에 행해진 조사에서도 유사한 자료가 있었다(本村, 洪, 1983). 한국의 어머니들(230명)과 일본의 어머니들(279명)이 갖는 이상적인 자녀상에 관하여 한일 간에 차이가 나는 항목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독립심과 자주성이 강한 어린이, 창의성이 풍부한 어린이를 드는 어머니가 일본보다 많았고, 반면 일본에서는 약속이나 정한 일은 확실히 지키는 어린이, 정조(情操)가 풍부한 어린이, 확실히 자기의견을 말하는 어린이를 선택한 어머니가 한국보다 많았다. 독립심, 자주성, 창의성, 자기주장성은 주체성 자기와 관련 깊은 특성들인데, 한국에서 이들 특성을 갖는 어린이상의 비율을 합하면 70.9%나 됐었지만 일본에서는 40.2% 밖에 안 됐다. 한편, 신뢰성, 정조(情操), 예의는 상대를 존중하고 공감하고 외부기원의 준거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대상성 자기와 관련 깊은 특성들인데, 일본에서 이들 특성을 갖는 어린이상의 비율을 합하면 37.9%나 됐었지만 한국에서는 11.8% 밖에 안 됐다. 이러한 각기 다른 이상적 자녀상을 가지고 있던 양국의 어머니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어머니였다. 이 어머니들이 키운 학생들은 현재 30대 후반의 성인 한국인과 일본인이 되어 있다.

자녀의 장래에 대한 기대

자녀양육에 있어 그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이 이상적인 자녀상이라면 양육의 추진력의 중요한 지표는 자녀의 장래에 대한 기대일 것이다. 이 점에서도 한일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한국의 어머니들이 일본의 어머니들보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한층 더 컸었다(本村, 洪, 1983). 일본 어머니들은 자녀가 부모 이상의 인물이 돼줬으면 좋겠다고 크게 기대를 거는 사람들(41.6%)과 능력에 맞는 인물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40.9%)의 비율이 비슷했다. 그러나 한국 어머니들은 자녀가 능력에 맞는 인물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28.3%)보다 부모 이상의 인물이 돼줬으면 하는 사람들(68.7%)이 2배 이상 많았다.

기대되는 자녀의 학력(學歷)

그렇다면 한국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부모 이상의 인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학력(學歷)이다. 자녀의 학력에 대한 부모의 기대에 있어서도 한국 어머니들의 기대가 일본 어머니들의 기대보다 더 컸었다(本村, 洪, 1983). 즉, 일본 어머니들의 경우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원하는 사람은 21.4%였으나 한국 어머니들의 경우는 84.4%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원하고 있었다. 이것은 상당히 큰 차이이다. 이들 중 자녀가 대학원에까지 진학하는 것을 희망하는 일본 어머니는 0.3%에 불과했지만, 한국 어머니 중에는 그러한 사람이 29.6%나 된다. 그리고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아들에게 원하는 학력 수준과 딸에게 원하는 수준에는 꽤 차이가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없었다. 일본 어머니들은 아들에게는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원하는 사람이 상

당수가 되었지만(37.2%) 딸에게 그러한 기대를 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5.5%). 그러나 한국 어머니들은 아들에게 뿐만 아니라(87.0%) 딸에게도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원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다(81.3%). 1990년대에 행해진 조사(玄正煥, 1991)에서는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원하는 일본 어머니들이 좀 더 많았지만(아들: 83.9%, 딸: 42.0%), 한국 어머니의 경우는 이전과 유사한 높은 기대를 나타냈다(아들: 87.6%, 딸: 79.3%).

이상과 같이 한국부모와 일본부모는 자녀양육태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한국의 부모 중에는 자기 자녀를 책임감이 강하고 적극적이며 독립심, 자주성, 창의성이 풍부한 어린이로 키우고 싶어 하고 학력(學歷)이나 사회적 성공 측면에서 큰 기대를 거는 사람이 많았다. 한편 일본의 부모 중에는 자기 자녀를 배려심이나 동정심이 많으며 약속이나 정한 일은 확실히 지키고 정조(情操)가 풍부한 어린이로 키우고 싶어 하고 학력(學歷)이나 사회적 성공 측면에서 적당한 기대를 거는 사람이 많았다. 이러한 자녀양육태도의 차이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자기관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한국 부모는 한국의 문화적 자기관이 주체성 자기임을 지각하고 이 자기관에 맞는 사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일이라는 신념으로 자녀양육에 임하는 지도 모른다. 일본 부모는 일본의 문화적 자기관이 대상성 자기임을 감지하고 이 자기관에 맞는 사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자녀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자녀양육에 임하는 지도 모른다. 자녀의 주체성 자기와 대상성 자기와 부모의 양육태도 및 문화적 자기관에 대한 표상의 관계도 앞으로 실증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이다.

한국인의 주체성 자기와 일본인의 대상성 자기 형성의 사회문화적 배경

한국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적인 관계망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관계주의 문화이며 가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연고주의는 사회적 역할관계를 정(情)의 관계로 전환시킨다는 주장이 있다(김동직, 한성열, 1998; 한규석, 2002). 한편 일본에서는 공적이고 직업적인 역할관계를 중요시하며 사적이고 심정적인 인간관계로부터의 침범을 경계한다는 주장이 있다(이누미야, 2004). 따라서 사적이고 심정적인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관계주의성향 문화와 주체성 자기는 일정한 관련성이 있고 공적이고 직업적인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집단주의성향 문화와 대상성 자기도 일정한 연관이 있는 지도 모른다.

사적이고 심정적인 인간관계 상황에서 주로 활성화되는 것은 주체성 자기일 수 있다. 심정적 관계는 보다 큰 사회적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이 비교적 쉽게 주체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역할관계에서는 도저히 주체가 될 수 없는 어린 아이도 때때로 또는 자주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친밀감을 추구하는 심정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폐쇄성이 높은 심정적 관계에서는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 주체의 위치를 취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한편 공적이고 직업적인 인간관계 상황에서 주로 활성화되는 것은 대상성 자기일 수 있다. 사회적 역할관계는 보다 큰 사회적 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은 기본적으로 그 체계 앞에서는 대상의 위치에 있게 되고 자유로운 행동은 크게 제한되고 규정된

행동을 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는 주체성을 발휘하기가 비교적 어려워진다. 가정에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년의 남성도 많은 경우 사회적 체계에 포섭되어 있는 역할적 관계에서는 보다 큰 사회적 체계의 대상으로서 사회적 규범과 기대되는 역할 등에 의해 자유로운 주체성의 발휘는 상당히 제한된다.

한국인의 주체성 자기와 일본인의 대상성 자기 형성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밝히기 위해, 사적이고 심정적인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관계주의성향과 주체성 자기의 관계 및 공적이고 직업적인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집단주의성향과 대상성 자기의 관계도 연구할 만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 김동직, 한성열 (1998). 개별성-관계성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1), 71-93.
- 김혜숙 (1995). 귀인상황의 공개성과 (집단)자아존중이 자기고양 귀인과 집단고양 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9(1), 45-63.
- 박영숙 (1990). 자아방어 진단검사 표준화 예비연구. 이화의대지, 13(3), 233-242.
- 윤운성 (2001).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15(3), 131-161.
- 이규태 (1977).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울: 문리사.
- 이누미야 요시유키 (2004). 한일 비교 성격론. 인본연구, 11, 101-124.
-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윤주 (2006). 긍정적 환상의 한일비교: 주체성 자기와 대상성 자

- 기에 의한 설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4), 19-34.
- 이누미야 요시유키, 최일호, 윤덕환, 서동효, 한성열 (1999). 비현실적 낙관성(unrealistic optimism) 경향에 있어서의 비교 문화 연구: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183-201.
- 이누미야 요시유키, 한민, 이다인, 이주희, 김소혜 (2007).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2), 17-34.
- 이훈구 (1980). 내외통계성: 한국 초, 중, 고등 학생의 내외통제 경향성, 학생생활연구, 제 5집(충북대학), 41-51.
- 임희섭 (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
- 정남운 (2004).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37-51.
- 정욱, 한규석 (2005). 자기고양 현상에 대한 조절변인으로서 자존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99-216.
- 조근호 (2002). 문화성향과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91-111.
- 조근호, 명정완 (2001). 문화성향과 자의식의 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11-139.
- 조선영,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재신, 최일호 (2005). 한국과 일본에서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공격자기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4), 49-60.
- 차재호, 정지원 (1993).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집합주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50-163.
- 천수성 (1992). 일본어뱅크 日本語 중급. 서울: 일본어뱅크.
- 최상진 (2000). 한국인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한규석 (2002).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伊藤忠弘(이토 타다히로) (1999). 社会的比較における自己高揚傾向: 平均以上効果の検討. 心理学研究, 70(5), 367-374.
- 吳善花 (1992). 新スカートの風: 日韓あわせ鏡の世界. 東京: 三交社
- 鎌原雅彦(감바라 마사히코), 樋口一辰(히구치 가즈토키) (1987). Locus of Control의 年齢的变化に関する研究. 教育心理学研究, 35(2), 177-183.
- 北山 忍(기타야마 시노부) (1998). 自己と感情文化心理学による問いかけ. 共立出版株式会社.
- 高田利武(다카타 토시타케), 大本美千恵(오오모토 미치에), 清家美紀(세이케 미키) (1996). 相互独立的-相互協調的自己観尺度(改訂版) の作成. 奈良大学紀要, 24, 157-173.
- 高野陽太郎(타카노 요우타로우, 纒坂英子(오사카 에이코) (1997). “日本人の集団主義”と“アメリカ人の個人主義”: 通説の再検討. 心理学研究, 68(4), 312-327.
- 土居健郎(도이 타케오) (1971). 甘えの構造 東

- 京: 弘文堂.
- 外山美樹(토야마 미키), 桜井茂男(사쿠라이 시게오) (2001). 日本人のポジティブ・イリュージョン現象. *心理学研究*, 72(4), 329-335.
- 須永進(스나가 스스무), 青木知史(아오키 사토시), 趙晤衍 (2005). 日韓の子育て観に関する比較研究. *秋草学園短期大学紀要*, 22, 131-144.
- 本村汎(모토무라 히로시), 洪上旭 (1983). 日・韓兩國の親子関係をめぐる比較研究 -親の養育観・養育態度と子の心理社会的特性を中心として-. *大阪市立大学生生活科学部紀要*, 31, 345-362.
- 玄正煥 (1991). 母親による幼児の社会性教育の日韓比較研究. *広島大学教育学部紀要*, 第1部, 40, 205-212.
- Baumeister, R. F. (1991). *Meanings of life*. Guilford Press.
- Gudykunst, W. B., Matsumoto, Y., Ting-Toomey, S., Nishida, T., Kim, K., and Heyman, S. (1996). The influence of cultural individualism-collectivism, self construals, and individual values on communication styles across culture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2, 510-543.
- Fromm, E. (1947). *Man for himself : An inquiry into the psychology of ethics*. N. Y.: Holt, Rinehart & Winston.
- Heine, S. J., Hamamura, T. (2007). In Search of East Asian Self-Enhanc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1(1), 4-27.
- Heine, S. J., Kitayama, S., Lehman, D. R., Takata, T., Ide, E., Leung, C., & Matsumoto, H. (2001). Divergent consequences of success and failure in Japan and North America. An investigation of self-improving motivations and malleable sel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599-615.
- Heine, S. J. & Lehman, D. R. (1995). Cultural variation in unrealistic optimism: Does the west feel more invulnerable than the e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95-607.
- Heine, S. J., & Lehman, D. R. (1997).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enhancement: An examination of group-serving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2(6), 1268-1283.
- Heine, S. J., Takata, T., & Lehman, D. R. (2000). Beyond Self-Presentation: Evidence for Self-Criticism among Japanes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1), 71-78.
- Heine, S. J., & Renshaw, K., (2002). Interjudge Agreement, Self-Enhancement, and Liking: Cross-Cultural Divergenc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5), 578-587.
- Horney, K. (1945). *Our inner conflicts: A constructive theory of neurosis*. New York: Norton.
- Jahoda, M. (1953).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health. *Social Casework* 34, 349-354.
- Kiesler, D. J. (1996). *Contemporary interpersonal theory and research: Personality,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Lackman, M. E. (1986). Locus of control in aging research: a case for multidimensional and domain-specific assess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Aging*, 1, 34-40.
- Lao, R. C. (1976). Is internal-external control an age-related variable? *Journal of Psychology*, 92,

- 3-7.
- Leung, T., & Kim, M. S. (1997). A revised self construal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 Levine, T. R., Bresnahan, M. J., Park, H. S., Lapinski, M. K., Wittenbaum, G. M., Shearman, S. M., Lee, S. Y., Chung, D., Ohashi, R. (2003). Self-Construal Scales Lack Validity.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9(2), 210-252.
- Markus, H., & Kitayama, S. (1991a). Culture and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 Kitayama, S. (1991b). Cultural variation in the self-concept. In J. Strauss & G. R. Goethals (Eds.), *The self: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New York: Springer-Verlag.
- Matsumoto, D. (1999). Culture and self: An empirical assessment of Markus and Kitayama's theory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 289-310.
- Matsumoto, D., Kudoh, T., & Takeuchi S. (1996). Changing Patter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ulture Psychology*, 2, 77-107.
- Milgram, N. A. (1971). Locus of control in negro and white children at four age level. *Psychological Reports*, 29, 459-465.
- Oyserman, D., Coon, H. M., & Kimmelmeier, M. (2002).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128, 3-72.
- Penk, W. (1969). Age changes and correlates of internal-external control scale. *Psychological Reports*, 25, 856.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 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80-591.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S.,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Taylor, S. E., & Brown, J. D. (1994). "Illusion" of mental health does not explain positive illusions. *American Psychologist*, 49, 972-973.
- 1차원고접수 : 2009. 4. 18.
수정원고접수 : 2009. 5. 18.
최종게재결정 : 2009. 5. 28.

A Comparison of Positive Illusions in South Koreans and Japanese: Subjective Self and Objective Self

Yoshiyuki Inumiya

Seojeong Colleg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an alternative model of cultural self-construals which can explain the differences in self-perception between South Koreans and Japanese. Traditionally accurate perception of self has been regarded as essential to mental health, but some researchers argue that positive illusions (or self-enhancing biases) are general characteristics of human thinking. Self-enhancement is one of the most reliable findings in Western cultures. However, many cross-cultural studies have found little or no such biases in Japan. Therefore, it has been argued that the cultural differences in self-perception reflect cross-culturally divergent view of self as independent (in European American cultures) or as interdependent (in Asian cultures). But this perspective cannot explain the positive illusions that South Koreans hav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proposed an alternative model of cultural self-construals: the subjective self of South Koreans vs. the objective self of Japanese. As required for theoretical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self-construals, we found that subjective self-construals were dominant in South Koreans ($n = 158$) and that objective self-construals were more pronounced in Japanese ($n = 131$). Also, as we had anticipated, South Koreans showed significantly more false uniqueness, perceived control, and unrealistic optimism than Japanese, and these positive illusions were related to stronger subjective self-construal and weaker objective self-construal for both South Koreans and Japanese. Therefore, we concluded that South Koreans show positive illusions because of their strong subjective self-construals and weak objective self-construals, whereas Japanese show weak or no positive illusions because of their weak subjective self-construals and strong objective self-construals.

Key words : self-construal, subjective self, objective self, positive illusions, self-enhancing biases